

# SNS 자기표현행위에 따른 대인관계변화

Seung-gyu Lee, Seung-jea Won, Chi-seon Yu  
Dept. of Applied Statistics, HOSEO University

## I.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SNS사용이 활성화 되어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일과의 일부가 되어버린 SNS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SNS의 사용이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게 되었고, 대한민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SNS사용에 따라 대인관계 측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



## II. 일정 및 수행방법

- 1) 조사대상 : 대한민국 성인남녀 152명 중 무성의한 응답을 제거한 133명
- 2)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GoogleDocs'를 이용한 스마트폰 조사)
- 3) 설문지설계 : 5점 척도 이용
- 4) 조사내용 : 인적 사항(성별, 연령, 학력, 직업), SNS사용여부, SNS사용종류, SNS사용이유, SNS사용경력, SNS하루 이용시간, 자기표현행위, 대인관계변화, SNS지속사용의도, 커뮤니케이션능력
- 5) 진행일정 : 7/17~7.18 ~7.22 ~7.25 ~8.10 ~8.25

|      |        |      |      |        |
|------|--------|------|------|--------|
| 주제선정 | 설문지 작성 | 설문조사 | 자료분석 | 포스터 완성 |
|------|--------|------|------|--------|

## III. 분석결과

### 1. 빈도분석

(N=133)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를 조사해본 결과 **페이스북이 51.1%**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으로 21%, 밴드는 12.4%, 블로그는 6%, 트위터는 5.2% 마지막으로 카카오토티와 텀블러는 각각 2.6%, 1.7%를 차지하였다.

연령대는 20대의 비중이 높아 초반(20~22), 중반(23~24), 후반(25~29)로 나누고 20대미만 30대 이상으로 나누었다. **20대 중반이 45.3%**를 차지했고, 20대 초반이 35.8%로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했다. 20대미만이 4.1%로 가장 적은 수를 차지했다.

평균 하루 SNS 이용 시간을 조사해본 결과 **30분~60분이 27.8%**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그 다음 60분~90분이 25.6%, 90분~120분이 18.8%, 30분 이하가 16.5%, 120분~180분이 6%, 마지막으로 180분 이상이 5.3%를 차지했다.

### 2. 신뢰도 분석

|           |     |                       |
|-----------|-----|-----------------------|
| 자기표현능력    | 3문항 | Cronbach의 알파 = 0.8753 |
| 대인관계변화    | 5문항 | Cronbach의 알파 = 0.8492 |
| SNS지속사용의도 | 5문항 | Cronbach의 알파 = 0.8585 |
| 커뮤니케이션 능력 | 5문항 | Cronbach의 알파 = 0.898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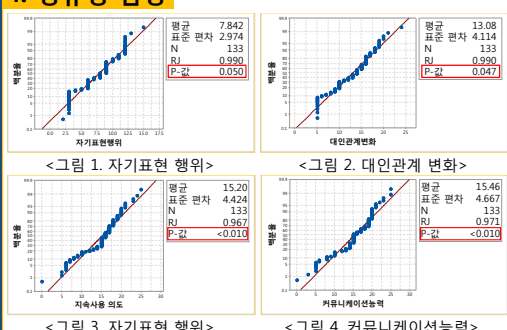
자기표현능력문항에 대한 Cronbach의 알파 값이 0.8753, 대인관계 변화에 대한 Cronbach의 알파 값이 0.8482, SNS지속사용의도에 대한 Cronbach의 알파 값이 0.8585,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Cronbach의 알파 값이 0.8989로 모든 문항의 알파 값이 높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문항이다.

### 3. 기술통계량

(N=133)

| 변수       | N   | 평균     | 표준 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자기표현행위   | 133 | 7.842  | 2.974 | 2.000 | 15.000 |
| 대인관계변화   | 133 | 13.083 | 4.114 | 5.000 | 24.000 |
| 지속사용 의도  | 133 | 15.195 | 4.424 | 4.000 | 25.000 |
| 커뮤니케이션능력 | 133 | 15.459 | 4.667 | 0.000 | 25.000 |

### 4. 정규성 검정



### 5. 자기표현등급 차이 비교

**1) 대인관계 변화 차이 (Mann-Whitney 검정)**

<결과 1. 차이검정 결과> (N=133)

| 대인관계변화 | N  | 중위수    |
|--------|----|--------|
| H      | 80 | 15.000 |
| L      | 53 | 10.000 |

n1 - n2에 대한 점 추정치는 5.000입니다  
n1 - n2에 대한 95.0 백분률 치는 (3.000, 6.000)입니다  
W = 6631.0  
n1 = n2 대 n1 ≠ n2의 검정은 0.00000에서 유의합니다  
검정이 0.00000에서 유의합니다(같은 값을 위해 수정).

자기표현행위 점수가 중위수 8점보다 높으면 '높음', 낮으면 '낮음'으로 정했다. 분석결과 통계량 W = 6631.0이고 이에 대응하는 P-값이 <0.001으로 유의수준 0.05하에서 자기표현 등급에 따라 대인관계변화점수가 같다고 볼 수 없다. 높은 그룹의 대인관계변화 중위수는 15점, 낮은 그룹의 대인관계변화 중위수는 10점으로 **자기표현등급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대인관계변화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2) 커뮤니케이션 능력 차이 (Mann-Whitney 검정)**

<결과 2. 차이검정 결과> (N=133)

| 커뮤니케이션능력 | N  | 중위수    |
|----------|----|--------|
| H        | 80 | 17.000 |
| L        | 53 | 14.000 |

n1 - n2에 대한 점 추정치는 4.000입니다  
n1 - n2에 대한 95.0 백분률 치는 (2.000, 6.001)입니다  
W = 6340.5  
n1 = n2 대 n1 ≠ n2의 검정은 0.00000에서 유의합니다  
검정이 0.00000에서 유의합니다(같은 값을 위해 수정).

자기표현행위 점수가 중위수 8점보다 높으면 '높음', 낮으면 '낮음'으로 정했다. 분석결과 통계량 W = 6340.5이고 이에 대응하는 P-값이 <0.001으로 유의수준 0.05하에서 자기표현 등급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같다고 볼 수 없다. 높은 그룹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점수의 중위수는 17점, 낮은 그룹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점수의 중위수는 14점으로 **자기표현등급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3) 지속 사용의도 점수 차이 (Mann-Whitney 검정)**

<결과 3. 차이검정 결과> (N=133)

| 지속사용 의도 | N  | 중위수    |
|---------|----|--------|
| H       | 80 | 17.000 |
| L       | 53 | 14.000 |

n1 - n2에 대한 점 추정치는 4.000입니다  
n1 - n2에 대한 95.0 백분률 치는 (1.999, 6.000)입니다  
W = 6452.5  
n1 = n2 대 n1 ≠ n2의 검정은 0.00000에서 유의합니다  
검정이 0.00000에서 유의합니다(같은 값을 위해 수정).

자기표현행위 점수가 중위수 8점보다 높으면 '높음', 낮으면 '낮음'으로 정했다. 분석결과 통계량 W = 6340.5이고 이에 대응하는 P-값이 <0.001으로 유의수준 0.05하에서 자기표현 등급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같다고 볼 수 없다. 높은 그룹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점수의 중위수는 17점, 낮은 그룹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점수의 중위수는 14점으로 **자기표현등급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 6. 상관분석

**<결과 4. 상관분석 결과>**

상관계수가 0.498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P-값이 <0.001이므로 유의수준 0.05하에서 자기표현 행위와 대인관계 변화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증가하면 대인관계 긍정적으로 변한다** 라고 할 수 있다.

**<결과 5. 상관분석 결과>**

상관계수가 0.472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P-값이 <0.001이므로 유의수준 0.05하에서 대인관계 변화와 지속사용의도는 양의 상관 관계가 있으며 **대인관계 변화가 긍정적이면 지속사용의도 역시 긍정적이다** 라고 할 수 있다.

### 8. Kruskal-Wallis 검정

**1) 학력에 따른 차이(Kruskal-Wallis 검정)**

<결과 6. 차이검정 결과> (N=133)

대인관계변화에 대한 Kruskal-Wallis 검정

| 학력    | N   | 중위수    | Ave 순위 | Z      |
|-------|-----|--------|--------|--------|
| 초졸 이하 | 97  | 10.000 | 37.050 | -2.024 |
| 고졸    | 23  | 15.000 | 62.303 | -0.115 |
| 대졸 이상 | 130 | 12.000 | 65.050 | -1.999 |

H = 9.20 DF = 3 P = 0.027  
H = 9.20 DF = 3 P = 0.026(같은 값을 위해 수정)

다중비교결과 대학교 재학 이상인 사람이 고졸 이하인 사람보다 대인관계 변화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나이에 따른 차이 (Kruskal-Wallis 검정)**

<결과 7. 차이검정 결과> (N=133)

대인관계변화에 대한 Kruskal-Wallis 검정

| 나이  | N   | 중위수    | Ave 순위 | Z      |
|-----|-----|--------|--------|--------|
| 10대 | 10  | 12.000 | 65.050 | -0.765 |
| 20대 | 110 | 13.000 | 64.111 | -0.841 |
| 30대 | 6   | 13.000 | 64.111 | -0.841 |
| 40대 | 7   | 13.000 | 64.111 | -0.841 |

H = 7.21 DF = 4 P = 0.125  
H = 7.20 DF = 4 P = 0.125(같은 값을 위해 수정)

Kruskal-Wallis 검정결과 P-값이 0.125로 유의수준 0.05 하에서 나이에 따라 오프라인상에서 대인관계 변화는 차이가 없다.

**3) 하루 SNS이용시간에 따른 차이 (Kruskal-Wallis 검정)**

<결과 8. 차이검정 결과> (N=133)

대인관계변화에 대한 Kruskal-Wallis 검정

| 하루 SNS사용    | N  | 중위수    | Ave 순위 | Z      |
|-------------|----|--------|--------|--------|
| 150분 이상     | 13 | 15.000 | 74.7   | -0.568 |
| 120분 ~ 150분 | 37 | 14.000 | 69.7   | -0.511 |
| 90분 ~ 120분  | 34 | 14.000 | 69.7   | -0.511 |
| 60분 ~ 90분   | 34 | 14.000 | 69.7   | -0.511 |
| 30분 ~ 60분   | 15 | 13.000 | 64.111 | -0.841 |
| 30분 이하      | 10 | 12.000 | 65.050 | -0.765 |

H = 3.36 DF = 5 P = 0.646  
H = 3.36 DF = 5 P = 0.646(같은 값을 위해 수정)

Kruskal-Wallis 검정결과 P-값이 0.651로 유의수준 0.05 하에서 하루 SNS이용시간에 따라 오프라인상에서 대인관계 변화는 차이가 없다.

## IV. 결론

**▶ 요약**  
자기표현등급이 높은 사람이 자기표현 등급이 낮은 사람보다 **대인관계 변화가 크다.** 자기표현행위, 대인관계 변화,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대학 재학인 사람이 고졸 이하인 사람보다 **대인관계 변화가 긍정적이다.**

**▶ 주관적 견해**  
대학교 재학인 사람들이 고졸 이하인 사람들 보다 **대인관계 변화가 긍정적**인 것은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대인관계 변화에서 차이를 보인다. SNS사용은 업무와 학업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또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그 능력을 향상시켜 줌으로서 **대인관계 변화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 제언**  
SNS에서 자기표현을 통해 오프라인 상에서 대인관계를 넓힐 수는 있지만, 그 때문에 과도한 상대적응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대인관계 변화에서 차이를 보인다. SNS사용은 업무와 학업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SNS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